

이런요흔거슬조금다가우리를요기케하면맛이느볼가하는이다티성왕우리동던
 술은맛이업스니니다시을는가어더다먹조고즉시근두쳐은신법으로요지에어나
 가니합슈춤에잠든사람이그쳐서지안앗거늘선슈선효와조흔실과를도적하여가지
 고나려와못잔남이를불너난화먹이며즐기더라초시일곱선녀밤낮칠일을뜻々지섯
 다가겨오웁작여셔왕모낭々제외웁고티성의게속은말숨을났々치고흔디낭々왕반
 도난일마나스온다선녀답왈다만홍도다섯광주리를싸오되뒤줄에논는낫도익은거
 시업고다회엿스니일정티성이도적하여먹은듯함웁고또티성을잔채에불청하였다
 고도술을헹하야우리를뜻々지제워두고제면져오니이다낭々이차언을뜻고즉시
 일곱선녀를물니치고웁데제드러가이말숨을주하더니또요지에잔채맛흔관원이주
 하되외흠외공맛흔놈이웁익금장을다도적하여먹고갓나이다또티상로군이주하되
 엇던요괴궁에드러와호로에너흔금단을다도적하여먹고도망하였나이다또제련부
 선리등이드러와주하되티성이잔티업나이다또적각티선이주왕신이왕모낭々の청
 하심을입어반도회에가웁더니길에서티성이성지를전하미통명전에가기다리되
 룡거봉연은보지못함웁고티성의게속은비되였나이다웁데티로함스모든선관을명
 함스두로살피라함신대관원이대성이잔한홀거사을귀날웁데스대련왕을명함스리
 련왕과나탁티즈를부르시고이십팔슈와구요성군과오방거쳐와사치공조와동셔성
 두와남북이신과오악스독과보던성장과삼십삼련신장과삼만련병을조발하여게하

에나려가련라지망을치고슈렴동돌잔남이를잡으라함시니리련왕이명을받조와
 스스로중군이되고는탁티즈로선봉을삼고이십팔슈와육정육갑을거느려풍우갓치
 모라쌀너화과산에나려와슈렴동을철동갓치쓰고여덜쉴련라지망을자웁함게치
 고몬져구로선을보니어드러가싸호라홀티초시티성이철십이동요왕과네원슈와못
 잔남으로더부러선슈선과를먹으며즐기더니저구잔남이황망이드러와보하되아흙
 흥흥스름이발셔문을쳐치고드러오며사람을무슈이죽이나이다대성이티로왕을
 쟁겨시날을슈육함고함고독각티왕으로몬져싸호라함고티성은네원슈를거나려
 혈공함더라독각티왕이나가구료선군과싸호다가피함여도와보하되아흙별이효
 용함고신룡이거룩함피함여도와왔는이다티성이죽시금자방을두루고골문밖게
 나와싸호니하늘이뒤높고쌍이터지는듯함더라독각티왕과철십이동요왕이며못잔
 남이들이련장의게잡혀가고네원슈는못잔남이를다리고골노드러와숨으니티성이
 홀노쇠막티를두르고사면으로티적하니리련왕과사련왕과나탁은능히티적지못함
 여피함야다라나거늘티성이일진을이피며골노드러오니네원슈와못잔남들이피々
 을고잇다가대성을보고반기거늘대성왕승평는병가에상식라남을치면나도상호다
 함니하물며잡혀간거슨호표시랑이니우리자손은하는도잡혀감이업스니엇지죽히
 근심함리오함더라차시리련왕과사티련왕이달야함여본영에도와점고함니모든
 련장이각々공을드릴시호표시랑은무슈이잡앗스되잔남은하낫도잡지못하였거늘

○ 제륙회

관음부회문원인

쇼성시위방디성

사 터런왕이 중군에 영호야 터라 지망을 곳 깨끗코 하 놀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쓰화승부
 을 결하여 손오공을 잡으려 하더라

차설남히 보라 낙가 산디 조디 비관세음보살이 왕모낭 반도 회에 청함으로 제 조해안
 힘즈를 다 리시고 죽일에 썬나 스요 지모각에 이르시니 왕외업고 잔채기척이 전연호며
 여러 선관이 왔스나 서로 분사 이 말하거 날보살이 중선으로 더 부러 레 필에 보살왕임의
 만도 회를 아나 호면 낭사 이엇지 번승을 청하시더니 잇고 선관이 디성의 잔낭호고 다라
 논스 연을 설화 호온디 보살왕님의 잔채 처아나 호면 그 디 등은 빈승과 혼가지로 옥데 세
 뵈옵자 호고 동명전에 이르니 사 터런사나 오거늘 보살왕 옥데 세 뵈오려 호니 엇조
 라던 사 엇조 온디 옥데 데러 오라 호시니 초시 터 상로군이 우히 잇고 왕모낭사 이 뒤히 잇
 더니 보살이 드러와 옥데 세 뵈오며 레를 맞치미 또로 군과 왕모로 각사 레 필 좌정하니 보
 살이 반도 회화 향함을 못조오니 옥데 같오사 터히 마다 혼번식질기더니 금년에는 요괴
 의 돌잔남이 작란함을 인호야 성회 화향하니 짐이 십만 디 병을 하계에 보너 여 돌잔남
 이를 잡으라 호엿더니 지우금소식이 업스니 승부 엿더 호지 모르노라 보살이 해안을 불
 너닐오 터네 썰니 화과 산에 나려가 군정을 탐지 호되 만일 쓰호거던 팔힘을 도으라 호
 신디 해안이 명을 듯고 곳 철곤을 쥐고 화과 산에 이르러 터런왕을 보고 보살의 말을 불
 른디 사 터런왕과 터런왕이 쓰호려 나가 거늘 해안 왕희이 비록 무저 호나 혼 번나 아

가 싸화 잔남이를 성금호리 이다 리터 왕왕 여러 호보지 못호엿더니 네 보살을 피셔 비록
 신등을 엿엇스나 디성을 엿지 디적코저 호노 노해안이 디왕 부왕은 희이 디성과 파쓰호는
 양을 보소서 호고 죽시장 속을 엄정히 호고 후철곤을 들고 원문 밧게 나가 급히 웨여 왈
 요괴로 잔남이 어 디잇노 요 썰나 나와 호호야 한번 죽기를 면하라 디성이 터다라 왈 제
 런디 성로야 남이여 기게 시거니 와너는 엿던 요괴 완디 무섭도 안야 감히 날다려 육호는
 나해안 왈 나노 리터 왕에 들지 터 목탁이 러니 관세음보살의 신등을 비왔스니 도호는
 해안이 로라 디성이 터로 호여 왈 이 제네 아비와 아이다 너손에 피호여 죽게 되엿거늘
 남히에 가도를 닦지아나 호고 망영도이 무삼일노 점직이 죽으려 왈노 노해안이 터로 왈
 너 관세음의 명을 밧조와 군정을 탐지 호며 너을 잡으려 왈거 날 엿지 감히 밧친 말을 호는
 다 디성이 또 쇠막 디를 들고 다라 들러 어우러져 쓰화양진에서 북소리 진동호며 위엄을
 돕다라 디성이 해안으로 더 부러 반공에서 녹십여 합을 쓰호더니 해안이 능히 당치 못호
 여 반공으로 다라 나가 거늘 디성이 또 쏘지아나 호고 못잔남이 들을 다리고 도로 골노드
 라가 더라 해안이 피호여 도라와 원문에 드러가나 리터 왕과 나 탁터 조며 제련신장이나
 와마자 승부를 무르니 해안이 호흡을 통치 못호여 혈덕이 며 일오 터 디성이 가장 착호여
 신등이 가히 업스니 쓰호다가 피호여 도라 왈나 이다 호거늘 리터 왕이 디경호여 급히 표
 를 써 디력 귀왕을 식여 상제 매알되 라 호디 량인이 터라 지망을 열고 구름 타고 영쇼 보전
 밧게와 귀왕이 옥제를 뵈옵고 군정을 살오 터 여 초여 초호더니 다호니 보살이 묵연이 단

좌하시고 옥제는 디력귀왕의을인바 표를보시고 갈오스디이요 괴로온돌잔남이극
 진이신통하여 그런성신과심만던병을능히디적하니 다시누구를보닉여쓰홀고하신
 디말씀이맛지못하여서관제음보솔이합장하고주하되폐하논관심하소서빈승이흔
 신장이잇스니천거하와가히돌잔남을잡으리이다옥데무르시되천거하논빅엇더흔
 신장이노관제음보솔폐하미씨에아달현성이랑진군이니관쥬강구에서하계향
 화빛기를가음아오니능히이잔남을쳐공을일우리이다하오디장던쇠왕이랑진
 군이제능히승하오리잇가보솔왕이랑진군이일천이빅초두신을거나리고신통이
 거룩하여가장짜하리업스니이랑진군을보닉여치면가히이잔남이를잡으리이다
 옥데을허니기스즉시성지를나리와대력귀왕으로하여금이탕진군세보닉여화과산
 에나려와오공을잡으라하신대사력귀왕이성지를받조와구름을타고관강구로가니
 라츠시이랑진군이모든형제를다리고문어나와던사를마조성지를받조오니요괴로
 온돌잔남이죄악이관영하여던궁에드러와작란이무쌍하여반도와금단을도적하고
 요지에가옥익금장을도적하여선주선미를먹고던궁에대료하니잡아다가아비디지
 옥에너음죽히고로심만던병과리던왕부조를먼져보닉여던라지망으로그소혈을씻
 스되이기지못함으로이제특별이현절노군사를조발하여군전에나가게하니나쌀
 니화과산에나려가리던왕을도와근공을일우라하엿더라이랑진군이성지보기를맛
 치리디력귀왕을디접하여보닉고미산늑형제를불르고일천이빅초두신을거나려미

와기를다리고동양디히를지나화과산에가니던라지망을화과산에들니밀조총조이
 첫스니드러가지못할너라이에문적헌네별을불너닐오디나논이랑진군이러니옥데
 처지를받조와요괴로온돌잔남을잡으라왔나니슈히중군에보하라네별이급히중군
 에드러가보흔디스디던왕과리던왕이원문받게나와마자레필에군중승부를자서이
 이르니이랑진군이소왕쇼성이미산륙형대를다리고왔스니맛당이디성을잡을지
 라사디던왕이모든성신과던병을움작이지말고사면으로단조히적하여잇고리던왕
 부조는궁중에서우리쓰호는양을보고도마경을놓피드러빗치여다라나지못하게하
 되우리혹자피하여도구치말며니슈단으로베풀게하소서언홀에미산륙형제와초두
 신과미와기를다리고슈렴동받게오니못잔남이들이진을엄정히하고군중에큰괴
 을세웠스되제던디성이라써거늘이랑진군이썩지저왕이무상헌요괴로온돌잔남이
 엇지이런범남흔일홍을알았는다네죽기를실노써두려지아니커던나와날을디적
 하라흔디조성이급갑금투구에쇠막디를들고골문받게나와이랑진군을보고문왕너
 는어너곳소장이완디급시에죽고저하야담큰체하고왔는다이랑진군이썩지저왕이
 변난잔남이눈이잇스되망우리업서날을물나보는다나는옥화상제실소혜영현왕
 이랑진군이러니네던궁에와작란하며요지에와쇼료홀미디던명을받조와너를잡으
 러왔스니수히항복하야칼아리죽기를면하라디성이쇼왕닉드르니옥제미씨육심에
 견디지못하야인잔에나려와양가인을음란하야아달을나앗다하더니네그로소니

너와원쉬업슴으로네성명을요대호느니너는물너가고수이리갓흔리련왕부즈를보
 니라호대이랑진군이대로호야삼첨량인도를들고치거늘디성이또호외막디를들어
 싸화삼십여합에피승부업는지라진군이근두쳐변호여만길이나흔스름이되여하
 늘에자옥호칼노어지러이나리쳐오거늘디성이또호신훈을부러근두쳐변호여진군
 과갓치하늘에자옥호사름이되야외막디를두루고어우러져쓰호니하날이문허지는
 듯호며바다히뒤놓는듯호더라네원슈와못잔남이황々실식호야감히창금을움작여
 쓰호지못호고미산륙형제사면으로급히모든초두신평미외키외궁로를일시에노와
 골노즈레짓쳐드러가네원수와무잔남이들을잡으니남우잔남이군의를바리고쥬슴
 듯호며다라나니본영이문져문허지는지라디성이도라보고마음에황호호여쓰호신훈
 이업는지라급히본상을니여외막디를살며다라나거날진군이급히싸로며웨여왈
 대성아네항복호면죽기를면호리니수히항복호라호대々성이다라나거늘진군이쥬
 기를급히호니담성이골어귀에이르러는미산륙형제초두신훈을거나려마져쥬쳐오니
 대성이급호여외막대를번득여귀속에넋코몸을변호여자근참시되어나무수풀에드
 러안지니미산륙형제대성을일코간곳을물나속덕거리더니진군이싸라와보고대성
 이참시되어나무숫한진줄알고진군이또급히변호여시미되여다라드러날게로
 처니대성이또변호야큰호오리되여다라나거늘진군이또변호되자근고기되여시미
 물속에숨으니이진군이싸라와보미쥬적이업져찾지못호다가고기된줄짐작호

고또변호여감아귀되여々호속으로지는단이니또대성이이랑진군이줄알고쥬리를
 치고드러가거늘이랑진군이또아라보고드러쥬으려호니대성이또변호여물비
 암이되여물속으로다라들거늘이랑진군이또변호여강상두루미되여다라들거늘이
 랑진군이또변호여수리되여싸르니대성이또변호여기력이되여다라나니이랑진군
 이탄조로쏘아가삼을맛치니대성이마즈쥬러지다가도로변호여회호리바람이되여
 호모흉이를두루쳐닷다가호묘당이되여넙은묘문이되고넙쌀은창살이되여사지는
 흥낭파담이되나쥬리는감초지못호여묘당뒤히큰괴대되여섯거늘이랑진군이싸라
 와본죽기러기는간대업고다만저근묘당이잇거늘아라보고우으며왈너그전에보미
 이런괴셔가업더니에는싸로세웁스니일정대성이변호여나를속여드러가거늘물너
 호는도다호고칼을드러창짓게를치려호니대성이또놀나변호여또회리바람이되여
 다라나니미산륙형제싸라와아모리초지되중적이업거늘이랑진군이소왈이잔남이
 날을속이려호다가못호여또회호리바람이되여다라나스니이또호가장고허호다모
 든형제는에셔차즈라호고근두쳐반공에올으니리련왕과는탁티조일오디우리조마
 경으로공중에섯다가빛최여보니디성이바람이되여관강구로급히가니이랑진군이
 또호쌀니싸라가더니디성이또호흔져관강구로가다가변호여이랑진군이되여당중
 에드러가니모든신장이물나보고마져청상에올나가향화를점고할시모든백성들이
 향화를बाट러혹부귀도빌며복록도빌며혹자식도비러져성으로쥬원호거늘디성이

문서를보와가며결단하더니문득받기숯두어리며알외되이랑진군이또오신다하거
 늘아모리할줄모르고일시에나아가마지니이랑진군왕이이리오더너어되로
 갖는노모든신장이티답하되성은보지못하고진군이안에게서법스를결단하나이
 다하거늘이랑진군이급히드러가니티성이본상을너여다라나고저하거늘이랑진군
 이급히삼첩양인도를드러치니티성이또귀속으로셔여의금자방을너여두르며묘문
 을세치고너다라공중으로뛰여올나구름속에서어우러져쓰호려하니이랑진군이쓰
 호며화과산으로모라오더너사대련왕과미산륙형제일시에다라드러위위쓰고치더
 라션시에대력귀왕이옥데척지를받조와이랑진군을조발하여화과산으로보너고
 도라와옥데세봉명호은대옥데관세음보살과왕모낭과티상로군과모든선관으로
 더부러영소보전에게시다가대력귀왕이봉명호심을보시고이랑진군이발서접전하
 였슬거시되기별이업스니염여적지안이하도다하신대태관음보살이합장하고엿조
 오대빈승이청건대폐하를피셔남련문밖게가승부를보사이다옥데그말을올히녀이
 스즉시관세음보살과왕모낭이머티상로군이머모든선관이합세남련문밖게는아
 가보시니련라지방으로사면을치고보련성신과제련제장이머심만련병이정제하
 였스니금국이셔리곳고철통곳치삐는대리왕과는타티조조마경을들고반공중
 에섯는대이랑진군과미산륙형제도유신으로더부러대성을쫓치되능히이기지못하
 거늘관세음보살이옥데세엿조오대빈승이이랑진군을천거하여요괴로온돌잔납이

을웨어쓰고능히잡지못하오나우리도음이잇셔야잡을가하나이다티상로군왕감히
 못잡나니보살세무삼병의잇관대도으려하시논잇고보살왕이게버들가지뉘진유리
 병이잇스나나리미러치면마즈셔죽든안야도업더질거시니이랑진군이잡으리이
 다티상로군이왕이게쉴흔거룩흔거시잇스니보소서하고웬편으로셔둥근뉘리를너
 여닐오대이거시닐흙은금강타이니련디조판할제정괴로된거시니변화불칙하와나
 리미러치면가히대성을잡으리라하고먼저대성을바라고너잇씩대성이이랑
 진군과미산륙형제로더부러쓰흙만하고련상에서돋는줄은씩각지못하엿더너금강
 타이나러와금조방을아스니정히창황홀지음에관세음보살이류리병을나리치니대
 성의머리마자업더지거날이랑진군이대성에게로기를노호니라

○제철회 팔괘로중도대성 오형산하정심원

차시이랑진군이대성의게로기를노호니그기다라들어대성의머리를무러업지르거
 날대성이입으로썩지즈며다시어려노려하더니이랑진군과미산륙형제일시에다라
 드러대성의피육을썩러노호로썩여얼거미고진언을염하니능히다시는변화를못하
 거날관음보살과티상로군이그제야금강타과유리병을거두고옥데를피셔영소보전
 으로도라가시니라사대련왕이대성을잡아미온양을보고이에신병을거두어영으로
 도라와모든련장이다이랑진군세치하왈오날쓰흙에대성을잡음은모다진군의공이
 라하니이랑진군왕이논옥데홍복과모든신장의힘이라엇지소성의공이리잇고하

며스양함을마지아니하거늘미산륙형제활열위는곳티여닷도지말고어셔이잔납이
 를잡아가지고련상에올나가옥데제외와쳐치하심을기다리자흔대이랑진군왕너희
 들은선독에드지못하엿스니옥데제일척외움지못하엿스니감히우리와함제드러가
 지못하리니몬져관강구로도라가상을기다리라고리련왕과모든성신으로더르
 일천이백초두신을거두어복을올니머리가를부르고영소보전에올니가니옥제디희
 하여이랑진군을크게상스하스모든신병을다각각난화주라하셔고디력귀왕을명하
 여련병녀스디성을잡아요피버히는디나아가버히라하셔니련병이디성을잡아
 참디에갈고팔과도쳐로치며창으로지르되조곰도상치아니커날남두성이로하
 려련화로치되또라지안커늘우뢰맞흔관원을명하여외부외창을발하여지러이치
 되러럭도상치아니커날귀왕이모든신병으로더부러옥데제주하되오공이무삼선술
 을비왔는지외부외창으로치되상치아니문엇진일이니잇고옥제갈오스대엇지하
 여야이놈을쳐치할고하셔니티상로군이엿조오디잔납이도를닥가몸이이백만흔회
 에버셔나고또빈도와금단을도적하여먹고몸이쇠돌갓치되엿스니그저는버히자못
 할지라로신을맛기시면패피화로에너히철철스십구일을불노리와금단먹은정괴를
 다아스면슬어지리이다하셔니옥데즉시죽정육갑을명하스오공을잡아도솔궁에보너
 신디티상로군이도라와오공의맨노흔그르고비과골을썩여미여팔과화로에넛코주
 야로불을피워금단정괴를살으려하셔니화로는본디던지키벽할제팔과를응하엿스

니화로속에팔과를그렸더라대성이신통하여그묘리를알고마음에헤오디손방은바
 램이사는곳이니거과안즈면바람이거살너불곳이못오리라하고손방에안즈니불곳
 이아니오되연기를견디지못하여변하여목이불이되나눈방울은피로와고초를겨더
 니사십구일이찾는지라로군이헤오디말셔금단괴운이업슬거셔니디성이슬허졌스
 리라고고선관으로더부러화로압히가썩에를열고보니디성이두눈을부두혀고눈
 물을흘너민망답사하더니화로썩에여는쇼리를듯고흔번몸을뛰여발노박초업조르
 고너다르니불이헤여져련상에자옥하고인잔에불이떠러져가득하셔니로군이놀나잡
 바지고적히는군스와동져어린듯하거늘모든신장이일시에다라드러잡으려하셔
 라디성이귀속으로쇠막디를너여두르고도솔궁에서날뛰니감히다라들이업더라디
 성이바로영쇼보전에올나가니전밭개우성진군이있다가즉시쇠치를들어어우려져
 쓰호더니옥데아르시고우뢰맞흔삼십팔장을명하스디성을잡으라하셔니일시에
 위쓰코외부외창으로치너디성이러럭썩도두려함이업셔쇠막디를두르며셔로마즈
 쓰호더니또변하여세머리여섯팔 가진스름이되여손마다쇠막디를두르고좌우로
 날뛰니모다놀나감히손을벗쳐달아들지못하거늘옥데죽정육갑과익성진군을명하
 스썰너셔방에가셔가여리를쳐하여오라하셔니두선관이즉시녕산디뇌음스에가미
 사금광과팔보살이여리를피셔잇거늘드러가되고손오공의디료련궁함을슬외고옥
 데명을전하디셔가여리드르시고아란과가렵두존즈를다리시고즉시영소보전에오

시니 소리 진동하거늘 여리갈오사되 모든 퇴신은 쓰흠을 굿치고 벽너을 거 두라 혼
 티모든 퇴신이 물너가거늘 여리되 성을 불너오라 하스왈네 무삼 신통이거록 관디
 감히 옥데를 놀나게 하느뇨 되성이 본상을 닮녀나 아와로 괴등하 여알너는 엇던 보살
 이완디 감히 날을 꾸짖느뇨 여리왈나는 서방 정도 극나 제계 석가모니 불이니네 띠궁을
 료란이 흠을 듯고 잡아스비되 지옥에 너흐려하노라 되성이 되왈나는 화과 산수렴 동련
 상선인으로 선도를 닦가 몸이 백만 년 회에 버셔나 영소 보전에 올나갈 마음 이잇거늘 네
 엇던 중이 완디 감히 무섭도 안야 큰 말을 하느다 나는 퇴부 퇴창도 두려아니 하거날 잔망
 할지옥이 야니 방과나 다르려 여리갈오스되 옥데는 어려서 못터 일천 칠백 겁을 괴로이
 공부 하스 룡위에 올나 십이만 구천 육백 년을 거하 여게시거니와 너 갓흔 축성은 몸이 잔
 남이로 제상에 나준 성에 드지 못하엿고 흠 짐성이니 아모리 무상하나 엇지 감히 되
 부도 지설을 하 여 슈육하느다네 귀순치아니 면너를 좁아 지옥에 너히 백만 회 지나도
 룡구으며 지스물면치 못하리라 되성 왈 옥황의 존위는 범치 못할지언정 너 요란하거 작
 란하야 편치 못하거하리라 여리갈오스되 네 무삼 죄잇관디 작란하 여 불안케 하려하
 느다 되성 왈 너장성 불스흠으로 능히 칠십이가지 지살 변화와 또 근두운을 타십만 팔천
 리를 순식간 단이니 엇지 혼번 성선이 못되여 보리오여 리갈오스되네 신통하다 하니 되
 손바닥에 올나 뛰여 능히 손바닥을 넘흐면 띠위를 깨사 양 할 거시오 되 성 선관원을 다
 피시고 서방으로 가리라 되성 왈 그리하리이다 하거날 여리 손바닥 버리고 넘기를 저축

하니 되성이 스말 듯고 깃거마음에 헤오되 되 근두운을 한 번 타면 능히 십만 팔천 리를 가
 거던 엇지 혼번 뛰여 손바닥을 넘지 못하리오한 번 뛰어나면 성선이 되리라 하고 쇠막를
 되번 뛰여 귀속에 넣코드되 여스리 손바닥에 오르니 겨우 연념만 하거늘 부되 되기를 이
 괴려하며 평성에 비 혼바를 다하 여 근두쳐 혼곳에 다스르니 다섯 불근 피봉이 잇거늘 표
 를 하고와서 말하리라 하고 더력을 싸혀 필목을 밧드러가온 되봉에 크게 쓰되 제던 되성
 이여 괴와 혼번 놀고 가노라 하고 나즌 봉에와 똥을 누고 근두쳐와 제존의 손바닥에서 줄
 겨 뛰놀며 일오되 제존아로 손이 단여 왓스니 놀흔 성신 우희안치라 여리 일오스되 네 되
 손바닥 밧게나 가지 못하고 감히 어되로 갓드라 하느다 되성 왈 로손이 하날 가히 가나 다
 섯 불근 피봉이 잇거날 혼가온 되 큰 봉에 가노든 거슬 표하고 나즌 봉에와 똥을 누고 왓스
 니 스름을 보되 여 그 보람을 보고오라 하쇼셔 여리 일오스되 네아 못커나 머리를 속여나
 리미러 보라 되성이 급히 굴혀보니 과연 여리 손장가락에 글을 쓰고 엄지가 락에 똥을
 누엇거날 놀나성 각하되 부체가 업슨 신통을 닮여 로손을 속이도 다 하고 가만이다라 날
 썩을 성 각하고 왈 제존아 하도이다 르니 다시 근두쳐 보리이다 하고 뛰어나 오고져 하거
 날 제존이 손가락을 업쳐 손 좃자 버려나리 치며 오형술을 행하야 다섯 봉근 피를 밧드러
 오공을 지스르니 아란과가 셤이며 모든 퇴신과 띠상 선관등이 다 거록히 너기더라 여리
 오공을 좁아 지스르고 서방 제로가려 하시되 띠 봉원 슈와 띠원 슈 급히 영소 보
 전으로 나오거날 여리 보시니 옥데 팔경 띠여를 타시고 구광 보기를 밧치시고 전후에 선

악을 베풀고 나오시며 덕성 좁음을 사례하시와 세존은 잠가 올라가 경하연을 지니고 가
 소서여 리갈오사되 명되로 머물너니와 이 잔남이 잠기는 옥대의 흥복이시고 제신령의
 힘이라 엿지 빈승의 공이라 하시 잇고 옥대 천만하례하시고 즉시 측지를 나리시되 신을
 다 훑터바리시고 삼청소어와 오뢰눅스와 칠월 팔극과 구요십도와 모든 신선을 다 청하
 야 잔처에 차례하시고 사되련왕던스와 구련현녀를 명하여 옥경금월티현보궁에
 동양옥관을 명하여 여러를 청하사 경하하시고 선악을 진유하설시 모든 선관이여 리
 압히나아가 하례하여 왕세존의 가업은 법력으로 잔남이를 좁으리 잔처를 비설하여 경
 하하느니 즐기심을 바라나이다 여러왕 임의 경하연을 하면 엿지 일흠이 업스리오하시
 고 명하스왕 안던되 회라하시니 모든 선관이 선유선찬을 크게나오고 구련선악을 기록
 히 비설하야 즐김을 도을시왕모낭이 일만 선동과 일천선을 다리고 나려와 출추며
 옥반에 반도를 가득히 담아 세존전에나와 돌잔남이 잡음을 하례하고 또 남두성이 옥
 제와 여러를 밧고 잔남이 좁음을 처하하고 또 티상로군이 금단을 산호반에 담아 세존전
 에 드려치하시니 여러가져 온례물을 다 밧으신 후 잔처를 파하하고 서방으로 가려하시더
 니 문득 순시하는 선관이 급히 드려와 보하되 더성이 머리로 오히산을 들치고 나오려
 하나이다 하거날 여러스미속으로 좃차오만니 밧메음이란 금자로 쓴 부장을 너여 존스
 를 주며 갈오스되 급히가 그외 구히 못치라하시니 아란이 명을 밧즈와 오히산에가 부작
 을 못치니 과연 머리를 도로 움치거날 도라와 엿자오되 오공이 머리를 반만들치고 나오

려하더니 부작을 못치미도로 지질너드더이다 여러옥데세하직하고 련문을 나오히산
 으로나오스오방게제와도 지신을 불너왕너희이되를 지히여 잔남이 비급하거던 쇠
 락조를 먹이고 목말나하거던 구리 집을 먹이라하시고 닐오스여이돌잔남이 죄악이만
 호나그한이차면 구할사람이잇스리라하시고 드되여서방으로 도라오시니 제보살과
 제위라한이며 팔되금강과사되련왕이 모든 선장의 등을 거나리고 나아가 마즈니 향취
 궁중에가 득하엿고 상서의 괴운이 반공에어리엿더라

○제팔회

아불조경적극낙

관음봉지상장안

초설너리연되에올나단정히안젓스니 제보살과라한이 안연이나와 퇴고련궁에가섯
 든일을 못조오니 세존이오공을 좁아오히산에지서론말과옥데금월운궁에모든선관
 을청하여안던되회하는 선화들이르시니 대중이 기록히너겨합장스례하더라 일서는
 여러영산되됨스칠보년되에오르스제되보살과라한과금강게제를다리시고 큰
 법을강하실시삼총보랍과오운능암을일우니하날에서뿔비오고쌍에서금년이쇼스
 나고명월이던강에빗침갓치금식이명낭하더라 금풍이슬하고련과화창할대여리
 설법하시기를과하시고모든보살다러갈오스되련하사람들중에오죽동토스름들이
 사오나와우리불경을송상치아니하며공경치아니하고음란하고욕심이만흐니니천
 히제도하여던당에슈성케하시라하시고삼장진경을민드러스름을권하여어전대로
 나아가게하시니제대보살이합장하교슬오되삼장이란말삼이엇진말삼이니잇고

여러갈오스대하는흔하날들응함이오하는흔쌍을응함이오하는흔귀신을응함이니
 루게할면삼십오부에팔만일천오백사십스권이니이이른바팔만대장경이니취경을
 가져갈스름을어더천산만수에고초를겨고동도에전하여무량중생을제도할고하시
 니좌우대중이다목々하더니판세음보살이합장왕이대중々에동도에나갈스름이업
 고오직금선지동도에인연이잇스와가히대장경을너여다가전하여무량중생을제도
 할가하는이다제존이금선지를갓가이부르스갈오스대동도에나아가인간스름과갓
 처성장하여있다가서련에드러와팔만대장경을너여가동도에전함면공부를일위여
 성불하리라하시니금선스름명고물너나거늘여리관음보살세부락하스왕이제
 나의님엇든금란가스름별을주나니금선스름가질너을때에넘으면천산만수에모진
 귀신과악호즘싱이감히히치못할거시오또석장하는홀주시며왕이석장은너집혔든
 거시니스름이집호하면날에자옥호변을만나도절노버셔나리라하시니판세음보살
 이비스고고밤으미또금으로민든금슈파세슬가져오라하여보살을슈스왕이거슨
 일홀이금슈파니가는길에오형산에석갑중독잔습이를쓰일거시기로경가질너나가
 논당중의제되여부처파라하고또진즈바라하는진언을스승을가르쳐제어하게하
 고금슈파를그제제의게쓰이면절노슬에박혀져러지자아나하시니만일순종치아
 니하거든진언을념하면머리싸러지는듯하고압하견대지못하여죽을일이라도순종
 할거시니가만이스승될중을가르쳐라관음보살이사말씀을듯고깃거비스하시고물

너나와해안형즈를다리시고길을나니해안이천근쇠막대를들고보솔의좌우에떠나
 지아니하여피서형할시관음보솔이금란가스와구환석장파금슈파를단々이가지시
 고형산에나려옥진관을지나시더니금녕대선이보솔을마져향다를드리고머물너
 말씀하기를청하니이제여리명을받즈와동도에가경가질너갈스름을어드러가노라
 대선왕여초즉경가질너갈스름이어너씩에이곳에오리잇고보솔왕과약지못하니이
 다쉬오면스오년이오더대면어너씩지정치못하리라하시고대선을하직하고스승제
 즈길을여러가다가유스하에이르러보니이는삼천리약슈라동으로스막이연하고서
 흐로제번이스못치며남으로오관에이르렀스며북으로달사에동하엿스니넙비팔백
 리요원근이천만리나하고물결이호호탕탕하여날에자옥하거날보솔이해안다려
 왕이물이가장어려오니범골은실노건너기어렵도다하시고스승제정히말하더니
 문득물속으로셔고이흔소리나며홍악호요괴손에쇠막대를들어해안과슈십합을
 싸화승부를결치못하더니그요괴쇠막대를멈으르고이로대너는엇던화상이완대감
 히날을대적하려하는다해안이왕나논탄람리련왕에제이즈목탁이오범명은해안이
 러니스승님을피시고동도대당국에나아가서련에경가질너갈스름을다리가노라
 그요괴쳐달아왕너전에드르니네관세음보살을피셔북은슈플에셔형실을다는다
 하더니무삼일노에왔는다하시더니해안이이로대네치미러보라스승님이이에게서
 거든엇지물나보는다그요괴치미러보고막대를바리고나아가네번절하고엿즈오대

보솔님은 죄를 소하쇼셔 너 본대 요괴 아나 영소보전에 란 여를 피시든 권령대장이러니
 왕모낭의 반도회에 파리 반을 썬치다 하여 옥데로 하스하게 귀양보닉스 이얼골을
 띠드러두고 미일서리 갖흔 칼이나려와 가슴을 찌시니 견대지 못하여 잇따 감형인을 잡
 아 먹어 량식을 하더니 오날 보솔님을 만날 줄 엿지 칭각 하엿스리 오보솔알네 임의
 계에 귀향와 하늘에 죄를 엿고 솔성을 이다지 하엿스니 이 일론바 죄상가 죄로 다너이 제
 여 리명을 밧자와 동토에나 아가 경가 질너 갈스름을 다리러 가는니 네 경가 질너 가는스
 름을 기다려 제즈 되여 서던에 비불하 면 칼이나려와 지름도 업고 넷벼살을 도로어드리
 니 아지 못게라 뜻이 엿다 하뇨 요괴 왈 니 말셔 원하여 경가 질너 가는스름의 제즈 되여 전
 죄를 면하 고즈 하나 이다 하 고다 시엿즈 오대너이 못에서 스름을 무슈 살히 하 니 대골
 에 물이 가라 안즈 되져 짐게서 던에 경가 질너 가는스름을 잡아 먹엿더니 그스름이 머리
 아 흙이 물에쓰고 가라 안지 안이 커늘고 하하 여노에 썬여 두엿더니 그거시 영혼이 물속
 에서 못쳐며 민망하 지라 저 견대 경가 질너 갈스름이 이리로 안이 오면 전정을 그릇 띠들
 가 하느 이다 보솔 왈 벱스 이스리로 올거시니 그대골을 경가 질너 갈스름이 쓸거시니 업
 시치 말고 두라 요괴 왈 그러면 발원하여 가라 치심을 드르리 이다 보솔이 금식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경계하 여 범명을 오정이라 하 고 물을 가르쳐 그성을 스라 지어 주시니
 오정이 절하 여 스레 왈 이제는 발원하 여 용혼마음을 먹고 솔성을 아나 하 여 서던의 경가
 질너 갈스름을 기다리 이다 보솔이 깃거 오정을 리 별하 고 동으로 가시더니 혼놀흔 피에

다스라 보니 요괴의 괴운이 가득 엿거늘 피에 올라 보니 문득 광풍이 대작하 며 흉악한
 요괴 부리는 도다 지갓고 썩뒤에 긴 털이 드리웠고 두 귀 축쳐진 거시 정과를 들 고 바로
 보솔께 다라 들거늘 해안이 고성대 줄알너는 엿던 요괴 완대 눈이 업셔 감히 이렇듯 무례
 이 구는 다 쇠막대를 두다려 다라 드러 싸호더니 보살이 공중에서 보고 연삿을 어지러이
 나리쳐 정과와 쇠막대 두스이에 난화쓰호지 못하 게 할대 요괴 마음에 놀나 문왈 너는 엿
 던 화상이 완대 감히 삿을 나리와 날을 희롱하 는다 해안 왈 너는 눈이 머릿관대 물나보느
 나 나는 관세음보살의 제즈러니 삿나리치 신이 는 우리 스승님 관세음보살이 여날 물나
 보는다 그 요괴 왈 남히 관세음보살이 능히 삼지를 풀어 바리며 팔란을 구할손나 해안 왈
 우리 보살님이 발원하 여 여 만중성을 제 도하 려하 시거늘 엿지 삼지 팔란을 구할뿐이 리
 오하 니 그 요괴 그제야 정과를 바리고 공경례 비왈 노형아 사 못커나 보솔님께 죄게 하라
 해안 이공중을 가르쳐 왈 저 구름속에 계시니 나 아가 뵈오라 그 요괴 소리하 여 왈 보솔님
 아 죄를 소하 쇼셔 관음보살이 구름속에 서나리와 왈 네 엿던 듯히 정령이 완대 요괴 되여
 감히 나의 가는 길을 막는다 그 요괴 왈 나는 듯치아 나라 본대 던 상에 던 봉원 슈로 잔치
 에 술을 취하 고 향아를 희롱하 다가 옥데로 하스 죄를 주어 하계에 나리치시니 길을 그릇
 드리 이몸이 되여 이곳에서 스름을 잡아 량식을 하엿스니 아 모려나 구제하 쇼셔 보솔 왈
 이 산 일흠이 무엇이 라하 나뇨 요괴 왈 이 산 일흠은 북릉산이니 산중에 운잔동이 잇셔 그
 꽃서스옴나 이다 보솔 왈 네님의 하늘세 죄를 어더 이몸이 되엿스니 엿지 흠심을 못치지

안코슬성을하여죄상의가죄를하니만일처죄하면엇지려하는다요괴왈아즉비곱푸
 니살진맛조흔스름을잡아먹어비부름이웃들이무삼두려우미잇스리오나는비
 부른맛근천죄만죄라도죄방기갓거니와만약발원하여제도를잘할진대또흔쾌락하
 리로소이다보슬알스름이어진발원을하면하늘이도음이잇셔비곱푸거시업는니맛
 조흔음식이성길지라도어진마음을먹어도를다가넛베슬을하여지니미올거날무슴
 언고로스름을먹어죄를쓰하지옥에고초를격고저는다요괴듯고쌈이센듯하여보
 슬세빅번이나절하고왈니하늘세죄를첩々하여더슬길이망연하니이제는그른마
 음을먹지아니하고발원하여진스름이되리니아못커나싱도잇는곳을가듯치소서
 관음보슬왈니여리명을받지와셔련에경가질니갈스름을다리러가는니네그중에제
 지되여경을가져오면죄는불우히는혹듯하고복덕이불갓치일니라그요괴발원하여
 경가질너가는중의제지됨을발거날보슬이요괴를불너머리를어루만져경게가듯
 치고인하여성을제라하고일흔을오름이라하니오름왈일후난용흔마음을먹어마음
 과힘실을못치고제게하여경가질너가는스름을기다리라하여엇더라보살이오름을리
 별하고해안을다리고구름타고동도로가더니흐유훈이공중에달녀슬거지라발거날
 보슬이나가문왈너는엇던룡이완대무삼죄를어뎛는다그룡이답되나는셔히룡왕
 오윤의아들이러니일을그릇하여불을너여궁궐과야광주를터오다하여부왕이옥데
 세주하니옥데로하스삼빅년을공중에달녜스니오리지아니하야버힐지라보슬님은

잔명을구하소서보슬이불상이너기스해안을다리고남련문으로향하니구련스와
 장련스마지레하고옥데세주흔대옥데급히청하여보시거날보슬이합장왈빈승이여
 리명을밧아동토에경가질너가는스름을다리러가옵더니길에서보오니흐룡이죄를
 어더공중에달녀죽게되엿스니업대여빌건대목숨을살와의로써빈승을주시면경가
 질너가는스름의말을민드러리오고셔련의가죄를속하고저하는이다옥데즉시련지
 하스이에련장을명하여룡을노화보슬을주시니보슬이스레하고물너오시니옥
 룡이빅번이나머리조와스레하여왕원건대보살의교령대로하리이다보살왕네아직
 기본물에드리잇다가경가질너가는스름을기다려빅마되어셔련에가공을일우라옥
 룡이스레하고셔리를치고물속으로드러가더라보살이해안을다리시고동도로가시
 더니조주석에이르러금광이만줄이나하고괴운이자옥하엿거늘해안이견과에
 세다라왈스승님이곳이제련대성을잡아너흔오행산이아니잇가보슬왈오빅년전
 에여리대성을잡아가둔곳이라하시고스승데저산에올나가붓친부작을보시고알
 컷기를마지아니하시더니차시제련대성이되어아리셔충찬하는소리를듯고대경하여
 급하소리하여부르되칭찬하는선선아날을살녀주쇼셔보살이그소리를드르시고괴
 아리나려와차즈시니도지신과대성을맞흔련장이나와괴고대성잇는곳을같이쳐나
 아가대성을보리대성이돌틈에서몸을지질너머리만니밀고입으로말하되비곱푸못
 견대면석탄자를먹이고목마르면구리집을먹이오니설워이다하고몸을움작이지

못하니 보살이 갈오스대 능히 날을 아는 다대성이 불빛갓흔 눈을 드러 보고 머리 조으며 웨여 왈 님이 엿지 남히 보라 산관세음보살님을 모르릿가 설움이 지구하 여 이곳에서 일일이 여삼추오니 보살님은 제 도하 여 주소셔 보살 왈 님이 리의 명을 밧아 중국에 드러가 경가 질너 갈스름을 다 리러 가니 길 이이 리로 지는 지라 이럼으로 너를 보러 왔노라 티 성왕여 리날을 속여 이 산에 오빅년을 좁아 너 허두었스니 보살 님이 아 못커나 여 리제살와 날을 구하 여 주소셔 보살 왈 이 업축아 너를 구하 여 님 면네 노혀나 와 또 화를 지어 님 면 엿지 하 리 오대 성왕 님이 제는 님 웃쳐 현실을 닦고려 하오니 보살 님을 피셔 색라 단 이기를 원하느이다 보살이 이 말을 드르시고 가 장 깃거 왈 네이 렷듯어 전마음을 먹을진대 님이 제 동도의 대당국으로 드러가 여 리세 죄업고 속죄 청공함이 엿다 하 노대성이 대희하 여 왈 만일이 러 할 즉 빅만 번이나 발원하 여 제 조되려 하나 이다 보살 왈 네이 제순종 하려 하니 법명을 지어 줌이 엿다 하 노대 성왕 님의 법명이 있스니 손오공이라 하느이다 보살 왈 님이 제 오노길에 두요 괴를 만느니 그 요괴 순종하 거늘 님 경계 하 여셔련에 경가 질너 가는 당중에 제 조되 여 현실을 닦고라 하 고 각각 그 법명을 지어 주니 하느 혼오릉이 오하느 혼오정이 니 너 희일 흠은 오공이라 가 장 깃부도 다 하 시고 드대 여 해안을 다 리시고 동도로 나와 장안으로 드러가 스 두루 삼하시 다 가스승 제 조성 황묘에 나가니 도지신과 모든 신장이 보살세 죄업고 더디 마 존 죄를 청하 거늘 보살 왈 여 리 명을 밧아 경가 저을 스름을 다 리러 왔더니 이곳에서 잠간 쉬고저 하느니 너 희일 정 누설치 말

나 만일 누설하면 명부 지옥이 있느니라 모다 스레 하 고 물너 가 거 날 스승 제 조 몸을 감초와 장안에 숨으니라

○ 제구회 로룡왕을 죄범련조 위승상유서략명리

각설 동도 장안 부는 녀 티 제왕의 도읍할 곳이라 성곽이 장려 하 고 경기 절승 하 여 락하 의 제일이 러라 이 씨 티 당 티 종 황 데 정관 십삼 년이라 시절이 풍등 하 여 다 각 쇼업을 일치 아니 하 고 의식이 유족 하 지라 장안 성 밖 계 경하 른 물가에 두스람이 있스니 다 글을 잘하 나 과거를 아니 하 고 하나 은 고기를 파라 먹 으니 성명이 장 최라 하 고 하나 은 나무를 파라 먹 으니 성명은 리정이라 하 더 라 일 사 은 두스름이나 무도 지며 고기도 잡아 성중에와 술도 스 먹고 취 후엔 각 사 술 할 병식 사 메고 완보 하 여 경하 물 마 호로 오며 말하 더 니 장최이 로 티 리형 아 세상 사름이 다 명리를 닦도 와 흥진 마 는 티로 구 사 허 단 이 는 니 우 리 는 이제 빛 는 피 속과 맑은 물가에서 흐가 허 거 리 하 며 성이 하 여 명 리에 몸을 던지 사 아니 하 니 진실 노제인의 계 비 권 티 이 아니 는 혼가 리 정이 일 오 티 장형의 말이 가 장 유 리 하 거니 와 물가에서 살 미 갑 혼 피 만 못하 리라 하 고 셔로 노래 지어 부르 며 술을 부어 흥음 하 며 즐길 식 장 최 일 오 티 리형 아 너 는 피 흘 좃다 하 고 이르 지 말 나 피 속에 흥 악 혼 즘 성이 만흐니 혼 번만 나 면 장안 시 상에 고인을 다시 못 보 리라 리 정이 티로 하 여 일 오 티 이 몸 슬 거스 범의 계 물너 든 무슴 쾌 함이 있느나 장 최이 로 티 님 가 리 형 다 려 범의 계 물너 가 라 함이 아니 라 그 위 티 하 다 함이 니 나 의 단 이 는 물가 에 는 조 금 도 위 티 함이 없느니 나 리 정이 일

오디하늘에도 불칙호풍운이잇고 스름의게도 뜻밖회복이업느나물우히 단니며엇
 지닐찬말을호느노장최이로되네모르느노다장안성문거리의한점장호느점장이잇
 스니니날마다금식잉어하나씩보느여길흥을점복호니고기를셔호로가셔열흘잡으
 리라호면셔호로그되로잡고동으로가셔빅을잡으리라호면그선성의말되로실슈
 호는일이업기로빅발빅중호나니길흥을미리점복호여동셔남북으로단니며그물도
 치고나시질도호여무슈이슈리에실어다가시상의도돈을밧고와이러타시즐기니엇
 지조금이느위티힘이잇스리오호고셔로말호다가하여지니잇셔정히슈부순찰야
 취물가에서순행호다가저량인이엿초호여빅발빅중호단말을듯고즉시슈정궁
 에드러가룡왕을보고엿호오디신이순행호노라고물가에잇습더니호어부와호초부
 서로술먹으며말을결우거늘드르미어부이로되장셔문거리에점쳐파는선성이잇스
 니미일금식리어호느식보느고길흥을점복호여일절들남이업셔빅발빅중호다호오
 니일노불진디우리슈족들이낫치다잡혀가리니이스름의남으로말미암아오리
 지아니호여슈족이다진할거시니이제디왕의위엄이손상할가호나이다룡왕이청파
 에티로호여급히갈을잡아서문거리에가점복호는선성을죽이고호호거늘룡조룡손
 이쥬왕속담에도청도설의말을고지듯말호호엿스오니티왕이호제야체의말을드
 르시고문득스름을죽이시면이느적덕의손상호는법이오니부왕은천히호번점복호
 는스름의집에나가그진가를셔이안연후에죽임이늦지아니토소이다룡왕이그말

을올히녀거이에변호여선풍도골의호선비되여의관을정제호고장안에드러가셔문
 거리를초조점복호는선성의집을우르니사람이가릇치거늘룡왕이즉시초즈니바로
 드러가문왕이집이점복호는선성의집이다동지디왕연호나이다룡왕드러그동호
 라호니동자드러그너즉시나와청호거늘도스임의룡왕이온줄아랏느니라셔로
 마조좌정후에룡왕알나호하방에스더니오래도록비오지아니키로한지리심호여룡
 형이말못되디드른죽선성이점복이용호다호기로왔스오니선성은한번슈고를앗기
 지말고별노히가릇치소서선성알오래감을민근심됨이적지아니호지라니호변던리
 을잡간동호기로비를늘을괴필할지라다시무삼점복힘이잇스리오룡왕알그러면어
 니늘비가얼마나오리잇가선성알명일진시에구름이모혀스시에퇴정호고오시에
 비그오되물이셔조셋치되게오리라호거늘룡왕알분명그러할작시면날과나기를명
 함이엇다호노선성알무삼느기를호라호노룡왕알만일비그오되선성의말되로셔
 마어괴고물척슈그선성의말갓호진디니목숨을선성세드릴거시오만일시가어권죽
 선성의목숨이니게잇스리라호고셔로하직호후슈부에와나기호말을이른디슈족들
 이다소알비오게함은바다티왕의슈중에달엿스니제비록점복을잘호나제엇지나기
 야이괴리잇고모다말호더니문득반공으로셔경하룡왕을부르느노래잇거늘룡왕이
 마져부중에도라와향안을빅설호고육데척지를보니알
 던하에비오리아오니빅성이죽게되엇느니라니일경하룡왕은여덜물룡으로더

부러오주싸삼천리를맞하주되만일글음이잇스면죄를납을거시니셔제처를
주되오시뵈터미시셔지한을하여주라하엿더라

룡왕이간필에크게놀나던스를디접하여보내고문득슈족다려이르스되진제에이런
령훈사람이잇서던디의리치를흥하노지라니이제나기를질러이되엿스니엇지하리
오시군스주왕티왕은근심치마르쇼셔신이흔게교잇스니티왕이명일에비를주
시되잠간씩을그릇쳐주시며또흔비를감하여주시량이면나기를어과여져선성의목
숨을업시하시리이다룡왕이그말을을히너겨명일에여덜물룡과무스를점고하여장
안근처에서공중에서비를주되스시에구름을모호고오시에되정하여신시에긋치니
싸히겨우셔즈가늘게하고구름속에서변하여흰옷납은선비되어원슈성의티문을써
쳐드러가니선성이교위에높히안조조곰도요동치아니하거늘룡왕이썩지저왕요괴
로운선성이감히무삼점하노라하여시각을니게졌스니지체치말고슈이목숨을니
게드리라하거늘선성이앙던티소하니룡왕이더욱로하여본상을너크게운무를이
루히니빅주아득하고풍운이이러나며되정벽역이진동하되선성은조곰도불변안
직하고로왕나는죽을일이업거니와다만두리건디네목숨이경각에진할가하노라네
다른이는속이러니와나는속이지못하리라네옥데척지를어긋쳐당돌이시각을물니
며또흔비를감하여유기로죄를범하엿스니참룡티에버히는칼을엇지면할고하노라
살기를날다려못지아니하고도로허슈육하니룡중에는가장미혹하도다룡왕이사말

을듯고티경하여러력이솟을하며즉시풍운을것고본상을너도로선비되어구름에
뛰어나려와비러갈오티전스노다희룡이오니죄를스하소서선성이소왈네이제엇지
굴슬하노다너하노닐을보와서는조금도굴할마음이업스되보리민망하하니위하
여가룻치려니와다만니손으로는살오지못하느니니일오초삼각에던조에다짐바
다진초에결안하야인초에위증이참룡티에가너를버히리니위증은티당티중황제의
정승이니네황제세발팔하여위증의게청하면명을보전하리라룡왕이청파에눈물을
먹음고바로당티중궁중에드러가밤들기를기다려발팔하려하니츠시티종이빅호전
에서정침하실시꿈에궁문밖에나와뺏을보시더너경화룡왕이변하여사람이되어압
히나와제비왕폐하는잔명을살오소서티종이문왈너는하인이완티살기를구하노다
룡왕이답왈신은경하룡왕이러니비를그릇준죄로법을범하엿스오니살오소서
티종왕집은창성만다스릴싸름이오룡은선선이라집이엇지알니오룡왕이주왕내일
위증을명하스죽이게하엿스니위증다려일너목숨을구하소서하니티종이일오스디
위증이할일이면집이리일불너너를살게하리니방심하라하되룡왕이고두사은하고
물너가더라잇흔날티종이조회를바드시미문관은방현령두여회허쫓왕규등이오
무장은진속보은기산을지경덕단지현덕괴금등이오오주위증이업거늘티종이리정
을불너삼말삼을일으신디리정이주하여왈꿈이그러하시면승상을불너드리시고
금일은월문밖에니여보니저마옵소서티종이절월을보니여승상을불너조회에참너

하라하시니 초야에 승상이 향을 피우고 헌문을 보다가 조으더니 헌신선이 학을 타고 나
 려와 옥데명을 전하되 위종이 고히녀겨 목욕제게 하고 옥데명을 기다리노라 조회에 참
 네치아니 하고 있다니 문득 던져사를 보내여 부르시니 위종이 급히 스를싸라 드러가
 조회를 파하 후 위종을 금관전에 머물너 국사를 의논하려 하시니 위종이 몽스를 말습아
 니하시고 바둑을 시작하여 두시더니 판을 다 못두어 서위종이 몸이 곤하여 조을거늘
 태종이 세오지아니하시고 환자를 불러 다른 말습을 실시하여 경하룡의 명을 구치못하
 시니라 차시 위종이 잠간 조으더니 문득 서위종이 황망복지 주왕신이 폐하압혀서 조을물쳐
 닳지 못함 옴고 이제 죄를 범하였사오니 황공 무디로 소이다 태종이 일오스디경이나라
 중임을 맛타너 무곤비하미조으니 그 무삼허물이잇스리오 하시고 다시 바둑을 두실시
 군신이 다시 바둑을어로만져 버리시더니 이제 맛참오 초삼각이겨우 지노라 문득 조
 문밖에서 저저귀는 소리나더니 요무디장국진숙보와 경조윤서 무공이 드러와 주왕
 가런보남 녘 십즈거리 에 구름으로 서피호르며 룡의 머리나려졌스니 심히 고히하시
 다하거늘 태종이 놀나사 위종다려연고를 무르신디 위종이 주왕앗가신이 조을제경하
 룡왕이 비를 그릇 주다하고 옥데신을 명하여 버히라하시거늘 신이 참뵈디에 가오니 모
 든 참장이 룡을 버히려미여왔거늘 신이 버히오니 그 룡이 룡을 감초고 살거지라하고 비
 러왈 폐하살오시라 하시고 속이시다하고 눈물을 흘니 미신이 그 곡절을 몰나 버히구름
 밧게 닳치더니 글노이러하가시부나 폐하를 거드든 바를 물나고 이히너기나이다 태종

이가 장뵈웃쳐몽사들이 르시며 마음이 황홀하여 과운이 또흔 불평하시더니 야심후쳐
 량이 슬피우는 소리 잇거늘 태종이 더욱 놀나 몽룡이 보시니 머리업는 경하룡이 손에 머
 리를 들고 웨여왈 용치 못하 황데야 어이하야 목숨을 살오마하고 도로 허위증을 보내여
 날을 죽이니 내념나 왕세송스하시여 너를 잡아다가 면질하려 하시니 서나오라하고 원
 길이 또흔 함세 다라 드러 불문곡적하고 잡아살어내거늘 태종이 아모말 못하시고 정히
 버셔날길 이업셔답사울사하시여하시더니 초시 관음보솔이 경가질너 갈사 램을 다리러
 동도도 지묘에 계시다가 모든 첫것세우름 소래들 드르시고 처운을 타고 유리병에 버들
 가지를 썬즈가지고 오시다가 태종이 두첫거에 게쓰을너나 오시난 양을 보시고 문득
 지음하시해안을 불너이로사디이논다디왕이 불경 불도효고로 왕법이 침쇠하시려
 혼요마 첫거시 황데를 침범하도다하시고 단식함을 마지아니하시니라 초시 황데종야
 불미하시고 또흔 눈을 감으시면 또흔 경하룡이 목전에 현명하시니 황데 제신을 모호시고
 갈오사디 짐이 눈을 감으면 경하룡과 원길이 못첫거슬다리고 짐을 보치니 짐이 경등의
 반세슈고 혼은혜를 일분이나 감지 못할가하노라 제신이 호언으로 위로하시더라 잇썬
 도새이로디올지경덕은던 상회 부오원슈사지하엿고 진숙보는 스히를 맞흔 신장이라
 두장군이 전후문을 직히엿스면 요식범치 못하리라 하시니 량장이 갑주를 정제하며 엄숙
 히하고 손에 병과를 들고 현숙문과 선양문을 직히오니 초후로는 룡왕과 원길이 이리종
 눈에 보지아니하노라 이에 잠을 편히쉬니 위종이 깃거 량장을 증상하고 이로디이제

는병이잠잠나흐니아직물너가쉬라하더니삼스일후또귀곡성이들니거늘태종이
 병세침극하미리정을불너왈을지경덕과진숙보로문을적히미껏거시드러오지못하
 여병이나하더니이제다시복발하미엇지하리오리정이주왕위중으로롱버히든칼을
 잡고문을적히오면컷것들이드지못하리이다태종이즉시위중으로문을적히오니
 그룡이과연드러오지못하교풍도성어가염왕제송스호되당황제리제민이날을살오
 마하교제신하위중을보니여날을참하니잡아무러지이다년왕이종기언하여차스로
 태종을잡으니라

각설태종황제졸연이위중하시니이지못하실줄아르시고목욕하교시옷입고제신을
 모와후스를부탁하실시위중이주왕이느룡의작일이니폐하흔번풍도성에단여오시
 기를면치못하시리니신에편지를밧으사최판관의게전하시면반다시무사하리이다
 하교서간을드려태종제을니태종이밧아품에감초시고봉하시니삼궁과륙완비빈
 이며문무백관이다발상거의하교지궁을빅호전에되시다태종의령흔이이의빅복문
 을나시니어림군이만히모다채금쇼여를가져와산영가사이다하거늘태종이깃거금
 년을타시고가시더니할물가에다스르니황흔이되였다라일식이업고슬픈안키는자
 옥히제엇는되홀노저근비흔척이물가에잇거늘그비에을으니허다인마는다셔러
 지고황건쓴스즈이어되셔물을건너가니말흔필이섯는지라태종이말을라니두스즈
 모라갈시황영을넘어하다리를건너흔성에이르니성우에크게삼즈를써스되풍도성

이라하엿거늘태종이마음에깃각하되임의이쌍에왔스니녀시라도고국에도라가기
 어렵도다하더니문득흔관원이머리에스모쓰고몸에청관되입고허리에오각되를써
 고손에상아홀을쥐고되령츠를라고성외에나와하거비알하거늘태종이문왈그되논
 엿던스름이노기인이되왈신은판관최옥이러니양제에잇슬셔에폐하를섬기와례부
 사랑이을너니이제명부에와싱스부맛흔판원이되였다니슈일전에경하룡이삼라전
 에와십왕제하소하되폐하살오시마하교짐짓위중을식여죽이다하여건성원길이증
 참하니그일이실상이되고폐하을에쉬진하여게시미넘라왕이채스를보너폐하를
 청하엿스오니던당패락을누리실지라두러마르소서하거늘이에태종이깃거최옥
 의손을잡으시고갈오스되이는다스하이라하시고풍속으로서위중의글월을너여최
 옥을주시니최옥이밧아보니위중의글월이라그셔에하엿스되고우위중은최선싱좌
 하에글월을을너는니옛날스귀든정이유명이흔번겨하미셔로보기어려운지라미양
 절일이면눈물을먹음고화향유찬으로정을붓치더니흠향흔이잇섯는지몽중에도바
 리지아니하교차져보니비로소형이놓흔도잇는줄은아나양음이현겨하여흔갓슬허
 할뿐이라이제황상이경하룡과건성원길에참쇼를입어잠간풍도성에가시니은코송
 사를결단하심이형의장중에잇는지라우리황상이넛날이십년전장의창성을구제하
 든은혜를싱각하며또넛벗의충셔을어엿비녀겨황상의령흔을도로장안으로오서게
 하면위중이맛당이후일에은혜를갑흐리라하엿더라잇지되고

○제심회

유지부대종환혼

진과과유전속비

차설최옥이남필에주왈저경하룡이제죄로위중이던명을받조와버힌줄신이임의조
 서이알고하물며신의조손이폐하조정에서던복을먹으며넋벗의글월이왔소오니신
 이극역하와다시제상에나아가시게하리이다하고말하더니문득청의동조동번보키
 를가지고와놓히외여월년라왕이청하시니이다대종이최판관을다리고동조를싸
 라서문에드러가니금조로일곱조를써스되유명지부귀문관이라하엿거늘성에드러
 가하져조거리로지나더니원일이니다라대종을선을며두다려명을달나하니대종이
 버셔나지못하논지라최판관이급히쫓고푸른낮가진첫거슬명하야너치고삼라전
 에드러가니전관이피옥을늘녀단이는더덕하에는우두나찰과마두나찰이온곳거
 슬거나리고좌우에버려셔셔지셔며구으며온곳형벌을하거늘대종이놀나시더니
 심왕이삼라전에나려와마조을니거늘리종이소양하디심왕왈황제는인간황제시고
 우리는음부군왕이라어이사양하시나잇고대종이부득이삼라전에올나죄를정하
 한헌을퍼디기중에진광디왕왈경하룡이일오디황데살오마하시고도로혀위중을보
 니여죽이다하고또원일이중참이되니만일그일이올호면가장맛당치아니하니엇
 진일인잇고대종왈집이살에경하룡이이로디비를그릇준일노하늘에죄를범하여위
 중의손에죽게되엿스니잔명을살오라하거늘집이허락하고즉시조회를과호후위중
 을명하여이말을일우려하야바독을시작하엿더니판관을채못두어위중이조을거늘

공하여그러하가하여셔오지안이하고다른환관과말할사이에위중의정녕이던상참
 룡디에가룡을버헿스니짐의허물은조곰도업세라심왕이일시에답왈룡의말은화데
 저를살너쥬마하고짐짓위중을보너죽엿스니이논속이미니원룡하야라하고송
 스하리우리등이그러하리라하나진가를알지못하기로황데를형함을면치못하고면
 지코져합이러니이제황데의말을드르니이논룡이그릇함이오황데의허물이안닌줄
 알지라황데등일던하하후은덕이사히에답혀어진정스만흐니명부에보응함이잇슬
 지라맛당이성사부를상고하야명부에미진호정스업게함이올라하고즉시건성원길
 과경하룡을다지옥에나리오니최판관이즉시성사부를상고하미과연써스되디당황
 데정관십삼년치국을할거시니츠년에운취진하리라하엿거늘최옥이급히붓을들어
 십조우히척숨쓰를더하야삼십삼년을민드러가지고드러가심왕께뵈은대심왕이보
 고대종제고왈황대룡위에을으신지몇하니잇고대종이갈오사디님의십삼년이로소
 이다심왕이소왈황데이십년을즈레드러와게시니도로나가쇼셔하거늘대종이
 만손스하고나오실시심왕을하적하고나오시다가그런여러곳지옥을보시고마음
 에참연하야하하야명스게다리를지나니비린바람이소하며피물결이후후하야호
 르거늘대종이최옥다려문왈이엇더하곳이노최옥왕이다리논어진사람이드러와
 다가도로나가는다라다라다리피호문지옥형벌에남은너시우나니다리를넘
 으면인간을다간작시니이다대종이또하하더니문득보니못첫거시머리업는것도잇

고허리업는 것도 잇서 내 다라크게 불너 왈 리 제 민아 부르 고 다라 들며 명을 달나 허거늘
 래종이 황겁허여 최옥의 뒤호로 가며 구하라 하니 최옥이 혼번사 매를 썰치미 못치거늘
 이물너가거늘 최옥왈이 것들은 폐하이 십년 병혁 중철 십이 번 싣홈에 이 미히 죽은 군왕
 이며 장스며 백성들이니 아 마도 이 것들은 그 저 두지 못할 지라 금은이나 돈이 는 어 더 주
 고 가 쇼셔 래종 왈 짐이 뵤손으로 드려 왔스니 엇지 허 리 오 인 제 갖흐 량이 면 금은 전 폐를
 무스 근심 허 리 오 최옥 왈 인자 사람이 아 모 거사 라 도 조 혼 일을 할 면 명 부에 보 응이 잇서
 그 보 시 허 여 남 주는 물건을 도로 바다 이 곳에 와 싣하 는 이 다 래종이 깃거 왈 연 죽 짐이 인
 세에 잇슬 때 에 문 무 백 관 과 만 성 백 성을 금은 과 피 백을 만히 주 었스니 반 다 시 이에 싣힌
 곳이 잇스 리 라 허 디 최옥이 이에 래종을 인 도 허 야 허 곳에 이르 니 장 원이 놀 히 들 녓는 디
 전 후 좌 우 에 창 고 가 득 히 버 려 거 늘 최옥 왈 이 거 시 폐 하 의 고 집 이 니 이 다 래종이 여 러
 달 나 허 디 최옥이 귀 스를 명 허 야 허 고 를 여 니 아 모 것 도 업 거 늘 래종이 고 허 녀 거 또 다 른
 고 를 여 니 또 허 비 여 아 모 것 도 업 스 리 래종이 처 례 로 여 러 곳 을 다 여 러 보 니 모 다 공 허
 향 고 오 지 던 싣 창 고 를 여 니 다 만 도 집 허 못이 잇 거 늘 래종이 가 장 의 괴 허 여 문 기 고 허 디
 최 옥 왈 폐 하 지 세 에 문 무 제 신 과 만 성 궁 민 등 을 비 록 금 은 전 폐 와 미 곡 금 룡 을 주 셔 도 이
 는 선 스 안 이 라 저 의 슈 고 향 고 밧 는 거 시 니 이 는 공 덕 이 아 니 오 저 집 허 못 은 폐 하 나 허 십
 제 세 에 한 제 집 이 허 산 코 조 할 시 집 허 업 서 민 망 이 녀 기 니 폐 하 그 를 보 고 꺾 연 이 선 심 이
 싣 동 허 여 집 허 못 을 주 었스 니 이 곳 공 덕 선 스 기 로 그 집 허 니 이 다 래종이 청 과 에 창 연 허

여 주 저 허 거 늘 최 옥 왈 이 곳에 허 스 램 이 금 은 이 여 러 고 허 잇 스 니 그 를 싣 어 저 것 들 을 주
 소 셔 래 종 왈 이 곳에 금 은 을 들 인 자 스 램 이 그 성 명 이 무 엇 이뇨 최 옥 왈 하 램 기 봉 부 스 램
 상 량 이 금 은 과 돈 을 만 히 보 시 흠 으 로 이 곳에 금 은 이 열 세 곳 이 싣 헛 스 니 폐 하 나 가 갑 호
 량 으 로 싣 어 쓰 옴 소 셔 래 종 이 초 언 을 듯 고 디 회 하 스 싣 어 쓰 는 문 서 를 민 드 러 최 옥 을
 맛 기 고 금 은 한 고 를 싣 어 후 터 주 고 그 런 것 거 슬 거 우 피 허 여 인 간 길 노 나 오 실 서 최 옥 이
 이에 래 종 귀 에 다 히 고 가 만 히 주 허 디 폐 하 이 번 도 로 나 가 심 이 선 이 죽 기 를 무 름 써 나 가
 시 게 허 엇 사 버 니 와 비 록 후 에 말 이 잇 서 도 뒤 흘 닷 그 스 던 당 으 로 오 심 을 발 원 허 시 고 앓
 가 십 디 명 왕 의 부 탁 허 시 든 부 처 와 경 문 을 공 경 허 여 슈 룩 디 회 를 시 작 허 여 지 옥 죄 인 과
 무 주 고 혼 과 반 명 벌 인 을 길 이 제 도 허 여 선 도 에 나 아 가 게 부 탁 허 게 시 든 말 삼 을 천 만
 번 잇 지 마 르 시 고 힘 써 허 소 셔 고 인 허 여 하 직 허 고 몸 을 도 로 허 도 라 가 니 래 종 이 마 음
 에 결 연 허 여 허 디 라 이에 귀 스 를 싣 라 허 흘 서 다 리 에 막 오 르 며 두 귀 스 뒤 호 로 밀 처 가 로
 처 니 문 두 몸 이 요 하 의 짜 저 과 여 오 르 지 못 할 스 이에 놀 나 세 니 잇 서 방 현 령 이 며 진 속 보
 일 반 제 신 을 백 호 전 의 모 화 이 조 를 던 하 에 나 리 며 래 즈 를 보 위 에 올 니 러 허 거 늘 위 중 이
 말 녀 왈 황 상 이 도 르 세 시 리 니 이 조 를 던 하 에 나 리 오 면 그 름 경 동 허 여 불 칙 지 회 잇 스 리
 니 슈 일 더 기 다 러 래 즈 직 위 허 고 이 조 를 나 리 미 듯 지 아 닐 가 허 노 라 허 디 방 현 령 왈 불 가
 허 다 예 못 더 사 자 는 불 가 부 심 이 라 황 상 이 엇 지 회 성 허 시 리 오 이 제 스 상 이 허 탄 허 이 단
 을 밋 어 엇 초 흠 이 니 엇 지 고 허 한 말 을 허 여 민 심 을 혹 게 허 는 노 향 물 며 던 즈 봉 허 신 지

일의삼일이어늘무삼연고로래조즉위하심을막노위증왕니그디등을속이지안이
 리니니절머셔부터선도를비화명부일을자셔이아나니화상이벽이회성하시리니
 너말을고지들어잠간기다리라하고말하더니문득궁인이고왕빈소호관속에서소리
 난다하거늘모든관원이덕경하여급히드러가관던기를떠하니과연염습흔거시절노
 글너지고티종이도로스라나시니좌우황하이모셔전에을으시게하고절하여되니대
 종이겨우정신을차려보실세제신이다모혔는지라이에삼라전에심디명왕과하
 든말과최옥의하든수말을이르시고두귀스위슈다리에와물에밀치미인하늘나선
 말숨을자셔이르시고또갈오디심디왕을리별할제최옥의답셔를니여위증을주시
 니승상왕이제폐하환성하여게시나첫거에기운이만히잇고병근이김흐니급히티의
 를명하여진정하실약을쓰고또더운죽을나오면기운이점々나으시리이다정언간에
 밧셔날이점으러난지라좌우외셔정침에드시게하고군신이모다물너와헌옷벗고
 밧들며편히쉬시니괴운이여상하신지라명일전에을나도회를바드실새대종이승상
 다려왈집이々번환성하미다경의덕이오경의편지를최옥을주시최옥이극역하여성
 스부에십년을느려짐을니여보너더라하고또갈오디삼라전에셔심디명왕을리별할
 제서과를보너여사례하마하엿고오른길에서형벌이참후함을보고지나오너니문
 득무수흔것들이너다라보치거늘최옥이々르느말을듯고하람기봉부상양이란스

롬의보시흐금은호고를싸어첫것들을주고겨우나올제최옥이집디려왈이번도라가
 심이요형이니도라가스용호중을어더큰슈륙을하모든고혼을먹이라하엿스니이
 세가지일을마지못하여형하리라하신디문무중관이다절하여하례하고천하사람이
 황데회성하신줄알고자스방벽이표를을너경하하나대종이견지하여티사던하하시
 고동기옥문하여죄인스벽을다너여노화다각々보너려할셔너히각々부모와쳐저를
 차조보고명년으로오라하시고또궁녀졸늘근이와아희를갈이여스천여인을니여보
 너시고을지경덕을하람기봉부에보너여상양을차조금을갈흐라하시고또방을장
 안스문에부터쓰되일성을살녀줄거시니죽어념라전에갈스름을구하미잇세균주셔
 히뉴전이란스름이집이본디가는하더니그안히리취련이일々은문밖게섯다가흔길
 승이와보시함을구하거늘취련이문득금봉차를째여보시하니뉴전이보고그안히줍
 으므로더보러사동합이잇는가하지즈니그안히발명치못하여자결하여죽으니제살먹
 은쌀이살녀달나하고하보최는지라뉴전이참아보지못하여주야로죽고조하너밤
 을보고죽기를자원하디티종이던지하스금난전에불너드리스남과열기를등에지이
 시고금년을만히사미에너허주어명부에드러가첫거슬주게하고독약을먹이니뉴전
 이죽어령혼이남파를지고풍도성밧게가니문직힌첫거시된다못거늘뉴전왕나는동
 도덕당황제흔치로서심디명왕께드릴서과를가져오노라하디귀스삼라전에고흐디
 죽시브르거늘뉴전이드러가니심디명왕이인간스름을잡아다가온가형벌을하거늘

뉴전이나아가남과를드리며왕덕당황대십왕세은혜를사례하러보너날왔나이다
 십왕이보고크게기거왕당황데는진실노유신호스름이로다하고남과를맞고이에문
 왕엇던사람이왕덕이리드러왔는다뉴전왕소인은균주스름이니성은뉴오명은전이
 미를차즈달나보치오미참아설위죽고즈하더니나라에서방을벗쳐명부에갈스름을
 자원을바드미몸을바려은혜를갑흐려하미죽음을앗기지아니하와드러왔나이다십
 덕명왕이차언을듯고귀졸을명하야리취련을불니되니부쳐서로붓들고동공하거늘
 십왕이관관을명하야싱스부를상고하니리취련이이십년을즈레드러왔스나다시만
 날연분이있다하엿거날십왕이왕뉴전의명이우리로하야이덕이드러왔스니저부
 부녀을합씩도로보니라하니귀졸이이로덕리취련이명부에드러온지발셔오랜
 지라일정시신이임의새속에드러가엿슬거시니령호을어다가붓치릿가십왕왕당
 황의누의옥영공주의명이금년에진하리니맛당이채스를명하야발셔너슬다려올거
 시로덕당황데낫을보와셔로그얼골이나보게하고다려오고저지금저지참앗더니옥
 영은다려오고리취련의녀슬그늑신에붓치라하니뉴전과리취련이귀졸을따라지부
 를떠나장안에드러와각각그늑신에부치고다가다잇덕옥영공주나히장성하엿스
 되밧쳐호취를못하엿더니후원에뺏을구경하며한가히단이다가문득첫거시다라
 드리옥영공주녀을잡아가고리취련의녀을드릿치니옥영공주호절하야쌍에업더지

거날삼궁바빈이대경하야황망이붓드러침쇼에되시고일변시너로금란전의가황데
 세알되니태종이머리를숙이고단왕과연심왕의말이허언이안이로다하시고쌀니드
 러오시더니궁인이또보하되공주잠간숨을니쉬나이다태종이천히와붓드러날오
 대누의병이엇더하노하신대공주몸을뒤치며왕장부는날을다리고함께가즈하거날
 태종이왕누의엇지현말을이러듯하노노공주눈을부릅쓰고왕그대는엇더호스름이
 완대손으로늘을붓드는다태종왕누의엇지이권말을하노노공주왕나는균주싸스름
 이라엇지너게황데오라비잇스리오너장부는뉴전이니셔달면에너문전에비는중이
 왔거늘금봉초를써여보시하엿더니장부의심하야쑥짓거날발명할일이업셔목을리
 여죽으니너이던당에올나갓더니나의장부뉴전이당황대의명을밧아너이남과를가
 지고삼라면에드러가니십왕이어엿비여겨우리부하의녀을합씩보너엿거든엇지
 너몸을붓드노노태종이좌우다려왕누의아직정산이황홀하야헛말을하니아죽조리
 케하라하시더니문직현관원이고하되뉴전이도로사라왔나이다하거늘태종이대경
 하스쌀니부르라하시니뉴전이드러와단지하에서절하여죄은대태종이갓가이나하
 오라하스도로은연고를무르시니뉴전이주왕신이폐하의명을밧즈와삼라전에남과
 를올니며황상이사과하시든말숨을전하오니모다기거왕당황데는과연유신하도다
 하고신에사는사과와성명을못거날쇼유를아되니십왕이신에안히리취련의녀을불너
 합씩도로보너시니신은도로나오나리취련의녀은아모대로간지모로나이다하거

늘대종이 경문왕리취련의 녀을 심왕이 어대로 보되 드요 뉴전이 주왕다 만듯스오니 혼
 컷거시 주왕되리 취련이 명부에 드려온지 오리여시신이 업슬거시니 그 녀을 어대가 붓
 처리잇고 리옥영이 금년의 드러을 슈나리 취련의 녀을 그 육신에 너흐라하니 옥영은 엇
 던스름인지 모르나이다 대종이 청파에 고히녀기스 제신다려이로스대 옥영은 곳짐의
 누의니 짐이 명부에 갓슬 제심왕이 옥영의 슈한이 저를 줄이르더니라하시고 또 공주불
 의에 괴절하엿다가 처여이르든 말슴을 일스히이르시니 위종왕취련의 녀을 비러도라
 왔는가 심부오니 성상은 공주다려 뉴전을 보고 엇지하나셔로 보게하소서 대종이 그
 말을 올히녀겨스즉시 궁인을 명하여 공주를 다려오라하시니 잇썬 공주왕나느본대 빈
 천흔집자식이라 부귀를 모르나니 녀집으로 보되여달나하고혜지르며다라느라하거
 늘여려비빈이 붓드러금란전에 이르러대종이 공주로 뉴전을 가듯처왕이 스름을 못네
 가보면네알쇼나공주대왕이 스름이 곳느의 양인이니 머리를 따하실적브러부스되여
 자식을나हत든 엇지몰느보리오대종이 근시를 명하여 공주를 다리고계하에느려가
 갓가히안치니공주 뉴전을 붓늘고 동곡왕장부날을바리고어대로갓든요하니 뉴전이
 보니그하느말은제안히오얼골은다른지라가장당황하여이모리할줄모르거늘대
 종이갈오되공주금년에 죽을슈오네안히녀이공주의게들고공주의 녀은풍도로갓
 스니말셔너의부쳐되게하엿는지라어려워말고다려다살느하고공주를 규주로보되
 라하시니 뉴전부쳐게하에서고두스은하거늘대종이공주의행도를추려궁중에서상

하쓰든것을다주어보되시며그사느곳에요역을다려주시니 뉴전부쳐규주로도라
 가의구이살더라올지경덕이금은을영거하여키봉부에 이르러상량을차즈니상량은
 본대가느흔스름으로어려셔붓터조흔일하기를일습더니저근보시흔 금은이지부
 에싸엿슴으로천만의외에올지경덕이조셔를가져금은을무슈이주시상량부쳐여취
 여광하여아모려도받지못하겟노라하거늘경덕이왕황상이회싱하실제그대조흔일
 을만이하여지부에싸인금은을최옥의게싸어쓰시고오신곡절을일으니상량부쳐고
 두왕비록죽어도받지못하겟다하거늘경덕이키유하여받으라하대고스불슈하거늘
 드대여이스연을조정에표주하온대대종왕상량은참어진스름이라하고그스느곳
 에온갓소녀을다려주시고경덕의게조셔하스금은을도로가져다가장안성중종
 요지스를갈히여경덕으로하여금대상국스란절을짓고또한상량부쳐의싱스당을지
 어조셔으로공경하게하시니오리지만나공녀을필하엿는지라대종이제신을다리
 시고이르스대짐이명부로쫓츠도라올제최판관이큰슈륙을하여무주고흔을천도
 하여녀싱을닷그라하미짐이허락하엿더니가히속이지못할지라너히큰절을창건하
 주슈륙을비설하여최옥에부탁하말을저바리지못할지라방부쳐던하에어진중을다
 부르라하시니태스부척이표를올녀허무흔일을하여던하인민을그릇인도함이니가
 처아니하여이다대종이로하여표를싸에던지고제신으로의론하라하시니소우출반
 주왕법을이시동중국흔지여려히로대실노히로움이업스오니 폐치못할지라이제그

르다 하는 일을 죄를 의논함이 가하다 하는 것을 부혁이로 하여 소우를 보아 알 불 법이란 거
 시 허무한 여아 비와 남군이 업스며 또 혼 필 부도런 자를 항거 하니 만일 불도를 흥흥 면당
 조지업이 일조에 업스리이다 쇼우 합장 하고 알 지옥이란 거 시이 갓 혼 거 슬 위 하여 성경
 도다 하고 랑인이 닛도 거 늘 대종이 승상 위 중과 태복 장도 원과 중 서 령 장 스 형 다 러 무 르
 신대 쇼우의 말과 갓 거 늘 대종이 드대 여 승상을 명 하는 사 수 륫을 비 설 하는 시 고 이후 로 부터
 불 법을 휘 방 하는 이 난 팔을 버 혀 호 령 하는 리라 하는 시 고 도 회 를 파 하는 시 니 모 다 물 너 와 육 호
 중 을 초 질 시 금 산 스 흥 일 티 스 의 웃 들 제 지 현 장 법 스 를 천 거 하는 리라

서 유 기 권 지 일 종

大正二年十月七日 初版發行
 大正十年十月三十日 印刷
 大正十年十一月五日 再版發行

西遊記第一卷
 實價金三十錢

京城府長沙洞五十一番地

編輯者 兼 朴 健 會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者 金 重 煥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十八番地

發行所 博文書館

振替口座京城二〇二三番



不許複製

